

# 가주 10월 20일 공휴일 법안 통과

## 힌두 새해 '빛의 축제', 주지사 서명 땀 공휴일 모두 12일



▲ 집 안과 밖에 등불을 켜 부와 번영의 여신이 들어와 축복을 내려주길 기원하는 힌두의 디왈리 축제, 사진=shutterstock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빛의 축제'로 불리는 디왈리(Diwali)를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AB268을 통과시켰다.

디왈리는 힌두 달력의 새해 시작을 알리는 5일간의 축제다. 보통 10월이나 11월, 한 해 마지막 수확이 끝난 뒤 기념된다. 부와 번영의 여신 락슈미를 모시는 의식이 중심이며, 참가자들은 집과 사무실, 사원, 공공장소에 등불을 켜 여신이 들어와 축복을 내려주길 기원한다. 또한 가족과 친구, 지역 공동체와 관계를 돈독히 하며 선물과 음식을 나누는 시간으로도 알려져 있다. 올해 디왈리는

10월 20일에 시작된다.

법안이 발효되면 커뮤니티 칼리지와 공립학교는 디왈리 당일 문을 닫을 수 있으며, 주정부 직원은 선택적으로 휴일을 쓸 수 있다. 또 일부 커뮤니티 칼리지 및 공립학교 직원들은 유급 휴가가 보장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세사르 차베스 데이, 노동절, 재향군인의 날을 포함해 11개의 주 공휴일이 있다. 새 법안이 시행되면 개인 뉴섬 주지사가 오는 10월 12일까지 서명해야 한다. 뉴섬 주지사 측은 법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법안을 발의한 산호세 출신 민주당 소속 아시 칼라 주하원의원은 "디왈리를 공식 주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이 축제가 지닌 종교적·역사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인도 디아스포라와 전 세계인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축제 중 하나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스아시안네트워크의 샤킬 시에드 전무는 이번 법안이 "힌두 공동체는 물론 남아시아 커뮤니티 전체의 주요 종교 행사를 인정하는 또 하나의 진전"이라며 "특히 2세, 3세 디아스포라가 사회의 일부로 느끼고, 학교와 대학에서도 '하이픈 불은 정체성'이 아닌 주류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펜실베이니아는 2024년 미국 최초로 디왈리를 공식 휴일로 지정했지만, 학교·관공서·기업에 휴무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올해는 코네티컷이 두 번째로 디왈리를 공휴일 목록에 추가했다. 뉴욕시에서는 2023년부터 공립학교가 디왈리에 휴교하며, 뉴저지 주 교육부도 학생들이 디왈리를 이유로 결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전기차 카풀 이용 11월까지 연장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허용됐던 카풀 차선 단독 이용 혜택이 오는 9월 30일 공식 종료되지만, 주정부가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성명을 통해 "법이 변경될 때마다 운전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클린 에어 차량 스티커를 소지한 운전자는 10월 1일부터 60일간 단독 운행 시에도 카풀 차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전기차 단독 카풀 차선 이용은 1999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17년 마지막 재승인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현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왔다. 지금까지 100만 개가 넘는 스티커가 발급됐으며, 주 차량국(DMV)은 지난 8월 29일부로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DMV의 스티브 고든 국장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프리웨이와 환경을 책임 있게 사용하는 데 기여해왔다"며 "프로그램 종료는 수십만 명의 운전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DMV는 이메일, 사무소,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관련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오바마케어 보조금 1년 연장 법안 발의

### 올해 종료 땀 보험료 평균 75% 급등 우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오바마케어(ACA)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연방정부 보조 확대 조치가 1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했기 때문이다.

톱 수오지 민주당 하원의원과 쟀 키건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된 보조금 확대 조치의 종료 시점을 올해 말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조치는 2021년 민주당 주도의 코로나19 구호 법안에 포함돼 시행된 것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비영리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2,400만 명 이상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 중 90%가 넘는 약 2,200만 명이 확대된 보조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조치가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면,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평균 75%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되자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보조 확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아 1년 연장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 “자동차, 집 보험”

보험료가 많이 올랐나요?  
보험 갱신을 안 해주나요?

문의 환영

정확하고  
친절한  
한국어  
서비스

**25년 경험으로** 고객에게 맞는 좋은 플랜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3년 고정 이자 4.75%**  
(\*최소 예치금액 \$100,000)  
2025년 8월 8일 기준(향후 변동 가능). 3년 내 해약 시 패널티 적용.

LiveWell Guarantee Max, a multi-year guaranteed annuity issued by Midland National Life Insurance Company.

Anaheim Office: 323 N. Brookhurst St., Anaheim

올스테이트는 메이저 회사로서 고객을 우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714.340.6903 / 714.715.8088  
YOUNG K. PARK, JD  
CA Lic No. 0C71251  
YoungPark@Allstate.com